

# 안개속 증시, 믿을건 실적... 반도체·IT·인터넷 업종 주목

美 대선,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대내외적 변수로 변동성 확대 3분기 실적개선 중심 대응 필요

대내외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3분기 실적시즌이 다가오며 실적개선 종목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전 분기와 다르게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이 높아진 성장주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더해져 실적 개선주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3개 이상의 증권사가 추천한 코스피 상장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은 38조3635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보다 22.2%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가 한 달 동안 3% 상승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 이익증가율·실적 컨센서스(예상치 평균) 변화〉

/에프앤가이드, 대신증권

이익증가율 저점 시점	업종	이익증가율(YoY, %)						1M실적컨센 변화(%)			
		4Q19	1Q20	2Q20	3Q20	4Q20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Q20	조선	흑전	87.2	적전	흑전	-5.1	-61.1	224.8	258.2	-27.4	-8.6
	비철,목재	13.4	4.9	-26.2	17.1	37.0	-3.0	6.3	9.6	1.2	1.1
	건설,건축	6.3	5.7	-8.7	2.5	13.4	-1.8	2.8	11.2	-1.0	-0.8
	은행	36.8	-3.4	-15.3	-8.9	4.0	21.1	-8.2	5.1	0.2	-0.1
	자동차	52.8	-10.6	-72.4	34.8	10.8	34.4	-13.9*	53.8	1.5	1.9
	화학품,의류	16.7	-23.5	-35.1	-21.2	8.5	13.1	-19.5	33.4	-0.7	-0.7
	소매(유통)	-5.1	-51.8	-67.0	-11.6	14.4	-18.9	-28.4	67.2	-1.9	0.8
	철강	-74.4	-49.8	-78.6	-51.0	101.9	-34.9	-46.0	65.9	0.6	-0.9
	미디어,교육	4.7	적전	적전	-61.2	-16.0	7.8	-73.2	306.8	-24.5	-3.2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오며 증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조언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이후 재정 정책이 나와야할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의가 늦어져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라는 변수도 있다.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종목을 눈여겨 보는 것이 첫 번째 대응 전략으로 거론된다.

이에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유럽의 경기 개

선 모멘텀 약화, 정책 공백은 수요에 대한 우려를 재차 확대시킬 수 있다"며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전까지는 실적이 양호한 업종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호한 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도체, 정보기술(IT), 자동차, 인터넷 정도로 압축된다. 특정 종목의 쏠림현상보다는 전체적인 업황 개선이 눈에 보이는 업종들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IT, 자동차, 인터넷 등을 꼽았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개월 전

대비 순이익 컨센서스(추정치) 변화율은 에너지, 소재, 경기소비재, IT섹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낙폭이 커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도 관심이 향한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나스닥 기술주의 총체적 부진에도 다우존스의 운송(철도·항공·해운)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등의 대형 수출 가치주의 추세적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1개월간 낙폭이 과

대했던 3분기 실적개선 업종으로 IT가전, 디스플레이, 화학(2차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종목으로는 OCI,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두산퓨얼셀, 다산네트웍스 등을 추천했다.

엔택트(Untact·비대면)로 분류되는 주도주 위주의 대응 역시 여전히 유효한 선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존 주도주인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은 2022년까지 매년 이익전망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구조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종목으로 LG전자, 금호석유, 삼성전기, 현대홈쇼핑, 현대차, 기아차 등을 꼽았다.

이경민 팀장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년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은 경기부양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며 "차별적인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성장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해 집중화하는 전략을 권고한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양극화된 IPO 시장... 대어에만 수요 집중

SK팜, 카캠 등 최대 수익률 200% 비비씨·원방키트 등은 시초가 하락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경우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기업공개(IPO)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역대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기업도 있는 반면, 공모 미달이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둔 기업도 적지 않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대어급 IPO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공모주의 인기는 SK바이오팜 공모주 흥행에 따른 학습효과가 한몫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이유로 시세차익을 누린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도 투자자들을

공모주로 이끌었다.

실제로 역대급 청약금이 몰린 SK바이오팜(200%), 카카오게임즈(200%) 외에도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다. 의약품 제조기업 위더스제약(200%), 2차전지 생산장비업체 티에스아이(200%), 2차전지 장비 제조기업 에이프로(200%), OLED 장비 개발기업 신도기연(200%), 종합제약사 한국파마(200%) 등의 기업은 공모가 대비 시초가 최대 수익률인 200%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인기 종목에만 수요가 집중돼 IPO가 무조건 흥행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1일 상장한 미세모 소재 텐탈케어 전문기업 비비씨는 464.19대1로 치열한 일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시초가가 2만2300원으로 공모가(3만700원) 대비 27.3% 하락했다. 클린룸 설비기업 원방테크(-9.9%), 카지노 게

임업체 미투젠(-5.5%), 분자진단 전문 바이오기업 젠큐릭스(-4.6%) 등도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증시 우려가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생물진단 전문 기업 퀀타메트릭스는 IPO 일정 진행 중 상장을 연기했다. 지난 9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이다.

퀀타메트릭스 관계자는 "IPO를 추진하는 중 여러 악조건들로 인해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웠다"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장 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IPO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극화된 IPO 시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상장 열기는 올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거래소, 코스닥 6社 온라인 IR 진행

오스코텍·브릿지바이오 등 대상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해외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온라인 글로벌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IR은 2010년 이후 홍콩, 싱가포르부터 지난해 미주 지역까지 매년 현지에서 개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현지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IR에는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바이오 기업과 해외 기관투자자간 IR자리가 마련됐다. 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스코텍, 브릿지바이오, 알테오젠, 제넥신, 휴젤, 제테마 총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현지 기관투자자들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 IR을 진행한다..

/송태화 기자

〈10월 둘째 주(10월12~18일) 분양캘린더〉

구분	시기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
청약 접수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	512(512)	49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497(497)	29~49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	367(367)	24~29
M/H 오픈	12일	충남 당진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998(998)	84
	15일	경기 여주시	여주역 우남퍼스트빌(2블록)	602(602)	59~99
		전북 익산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192(192)	84

\*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 이달 둘째 주, 서울·경기 4곳 청약

10월 둘째 주, 지역별 청약 접수는 서울, 경기 4곳 뿐이다. 서울에서는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경기에서는 '양평 까무 이스테이트' 타운하우스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1609가구(오피스텔·임대·타

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건본주택은 4곳에서 개관한다. 전북에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충남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 등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5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 온라인 취업 설명회

'우리의 꿈' 주제 토크 온 라이브

한국투자증권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 취업준비생과 직접 만나는 온라인 채용설명회 '토크 온 라이브'(TALK ON LIVE)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채용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에 따라 지난 8일 유튜브채널 생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김 회장이 '우리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참여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한국투자증권 인재상에 관한 질문에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김남구 한국투자금융그룹회장이 지난 8일, 유튜브 생방송 'TALK ON LIVE'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열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송태화 기자